

해외 선진도시(대만) 비교시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2012. 11.



성 동 구 의 회

여행 개요

- 여 행 국: 대만(타이베이 등)
- 여행기간: 2012. 11. 13.(화) ~ 11. 16.(금). 4일간
- 여행자인적사항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복지건설위원	최준화	주무관	박선기
행정재무위원	이길경	주무관	지수진
복지건설위원	정영철		

주요일정

일자	주요일정
11. 13.	대만(타이베이) 도착
11. 14.	타이베이 도로 등 기반시설 시찰, 스린야시장 방문
11. 15.	타이베이 시의회, 환경보호국 방문
11. 16.	인천공항 도착

여행목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와 가치관을 가졌지만 역사적·문화적 차이로 색다른 가치관과 도시 시스템을 가진 대만의 주요 기반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구에 벤치마킹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필요한 배경지식 등을 확충

특히, 도심 주변 환경(미관)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우리 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얻고자 함

보고서 작성자: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성명 최준화

■ 대만 현황

- 수도: 타이베이
- 면적: 35,980km²
- 인구: 약 23,234,936명
- 종교: 불교·유교·도교 혼합 93%, 그리스도교 4.5%
- 기후: 북부지역은 아열대기후, 남부지역은 열대기후
- 언어: 중국어(만다린), 대만어, 객가어
- 종족: 대만인(84%), 본토중국인(14%) 원주민(2%)
- 일반 현황: 대만의 위치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여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됐다. 1947년 1월 1일 제정되고 2005년 6월 7일 국민대회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대만은 입헌민주제 공화국으로 총통이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다.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5권 분립 체제 상 총통이 이를 관할한다.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가 발달되었으며 세계 IT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아열대기후지역에 속하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해풍이 자주 불고 습도가 높다. 연중 따뜻한 기온분포를 보이며 봄과 겨울에는 날씨의 변동이 심한 편이지만 여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온 변화를 보인다.

타이베이시의회를 다녀와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타이베이시의회에 방문하였다. 타이베이시의회에는 62명의 의원이 있고 그중 2명은 원주민에서 선출된다고 한다. 의원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권한은 우리와 비슷하게 입법권, 질의권, 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회기가 한 번 열리면 110일 동안 한다.

대강당에서 간단히 타이베이시의회의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시의회 청사를 둘러 보았다. 규모가 커서 그런것도 있지만 시민에게 개방한 공간이 눈에 띄었다. 한 층 전부에서 일반시민들이 한가롭게 차를 즐기는 모습이나 여기저기 쉽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장소들을 보니 시의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씨가 마침 회의 개최날이어서 회의가 준비된 본회의장을 볼 수 있었다. 전자시스템이 잘 정비 되어 있어 종이문서가 많지 않았으며 의원 2명당 1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처음에는 1명당 1대의 모니터가 있었지만 의원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조정했다고 한다. 타이베이시의회 또한 본인의 의정활동을 시



▲ 본회의장 의원들의 좌석

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

본회의장의 구조는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주 보게 배치되어 있다.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그대로 반영한 구조다. 대형 전광판은 의원들이 자료화면을 보여 줄 때 아주 유용하여 우리 구의회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사무처의 부비서관(차석)과 대화의 자리를 갖었다. 그중 대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요약하면

최준화 의원) 우리 구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보충할 개인 보좌관이 없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며 행정부를 100% 감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타이베이시의회는 어떠한가?



▲ 부비서관과의 대화

답변) 타이베이시의원 1명당 6~8명의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어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세세한 분야에도 감시를 할 수 있다.

정영철 의원) 그럼 보좌관을 고용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시정부 예산으로 24만 위안 내에서 지원해준다.

정영철 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는가?

답변) 정확한 금액은 말로하기 어렵지만 출국비, 상조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

최준화 의원) 사무처직원들은 어떻게 발령받나?

답변) 의장이 발령하며 사무처에서 근무하다면 대부분 직원들의 능력이 많이 향상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도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의회의 일이 비중 있고 어려운 편이다.

이길경 의원) 여성위원의 수는 많은가?

답변) 현재 21명으로 의원 4명중 1명은 여성위원이어야 한다.

정영철 의원) 회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답변) 110일정도 열리고 의원들이 오전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6시 30분까지 한다.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질의 등을 하기에 회기중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회기중에 공무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부비서관과의 대화중 느낀 것은 의원의 권한·권위가 강하고 의정활동의 기반이 우리보다 잘되어 있다. 그만큼 타이베이시의원들의 책임의식도 강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으며, 언론 또한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한다.



▲ 사무처 직원들과

타이베이시의회와 우리 구의회와 규모의 측면에서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보고 배울 점이 많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에 맞게 뒷받침해주는 인적·재정적 지원,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과 동반자라는 인식, 시민들과 언론의 높은 관심. 이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좀 낮게 평가되지만 정치면에서는 월등히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발전하기 위해서 타이베이시의회를 롤모델로 봐도 손색이 없다.

거리의 미관은 시정부 환경보호국에서.....

시의회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50미터 정도 떨어진 시정부의 환경보호국을 방문하였다. 환경보호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할 때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환경보호국 직원들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 환경보호국을



▲ *한적하고 깨끗한 타이베이 거리*

방문하는 것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보호국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실무진들이 많이 배석하여 정책의 세세한 것들도 많이 들을 수 있다.

타이베이시정부의 환경보호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이 오고갔다. 타이베이는 1990년부터 종량제봉투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시작해서 현재 약 천 톤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했다. 쓰레기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처리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일반쓰레기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나 살균처리를 한 후 가축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많이 줄였다.

쓰레기수거는 수·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청소차량이 길거리를 지나

가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청소차량에 집적 버린다. 청소 차량을 만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57개의 쓰레기 회수장소가 있어 그곳에 버리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기에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봉투가 없어 항상 길거리가 깨끗하다.

재활용품 수거는 주민가 수거반이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해 버리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여 수거한다. 이렇게 모아진 재활용품은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노력들로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3.8%의 쓰레기가 감소했으며 48%의 재활용률을 기록하였다.

오늘날 이렇게 깨끗한 타이베이시 거리가 탄생된 것은 환경보호국의 일방적인 정책 덕분은 아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도 좋은 정책은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만한 동기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다.

천장이 있는 인도.....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무덥고 비가 자주오며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대만 사람들은 우산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 **융캉제 대로변의 천장이 있는 인도**

바로 '천장이 있는 인도' 덕분이다. 도로쪽의 건물 1층의 일부를 인도로 만들고, 2층부터는 일반적인 건물의 모습이다. 이런 건물 구조 덕분에 햇볕이 따갑거나 소나기성 비가 자주 내려도 길거리를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한 인도와

건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도시 미관이 예쁘다.

도심이 오래되어 좁은 도로가 많고 재개발 예정지가 많은 성동구에 대만의 건물 형태를 적용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예로 금남시장에서 금호역 가는 길은 인도가 거의



▲ **대만의 거리 와 비교되는 성동구의 금호역 가는 인도**

없다시피 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기엔 재정상 부담이 된다.

대만의 건축형태를 적용하면 우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좁은 인도를 확보할 수 있고, 건물 밑에 조성되어 있는 인도를 이색적인 문화의 거리 혹은, 특색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면 젊은이들에게 감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 종로 등으로 나가있는 젊은이들을 성동구로 끌어들이어 주변 경제에 도움 될 것이다. 그리고 파주의 프로방스거리 등과 같은 성동구의 대표적인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에 빙판 사고가 많은데 건물 천장으로 근본적으로 인도에 눈이 내리지 않으니 경사가 심한 금호·옥수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조성 및 관리는 대만 같이 건물주가 하도록 하면 자기 소유 의식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처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다.

▲ 인도의 관리는 건물주가 하는 대만

스린야시장 · 찐주찬 대표적 외식문화.....

타이페이의 아침은 매우 일찍 시작된다. 공원에선 새벽같이 나온 시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고,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침을 해먹는 집이 워낙 적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동네 길가에 자리 잡은 거리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거나 싸가서 회사에서 해결한다고 한다.



▲ 찐주찬 가게

대표적인 동네 식당으로는 찐주찬(자조찬, 自助餐)이 있다. 찐주찬의 뜻은 '자기 스스로 먹는 식당' 즉 셀프서비스 식당이란 말로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 담고 계산을 한 후 맘에 드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편리한 식당이다.

대만인들은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도 주로 이곳에서 밥과 밑반찬을 장만한다고 한다. 찐주찬이 아침에 가장 붐비며, 점심까지 많이 이용하는 반면, 찐주찬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이 되면 야시장의 가게들이 '내 시간이구만'하며 문을 열기 시작한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스린 야시장에서는



▲ 찐주찬의 다채로운 음식

산해진미의 천국 대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식사하는 동안 초두부(삶은 야채국물에 두부를 삶은 발효음식)냄새로 힘들었지만,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야시장에서 가족 단위로 모여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끌벅적한 대만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네 인생사가 야시장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불야성인 스린 야시장

무엇보다 스린 야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객이 많다는 점이다. 스린 야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관광객을 실은 버스를 보고 기겁을 했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남대문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성동구에는 관광객에게 어필할만한 특색 있는 시장이 없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있기 하지만 한 두시간 축산물시장을 걸어보면 단지 고기를 사러 온 이웃주민들뿐이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보면 대부분 대형마트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냐’의 정도이다. 즉, 발전은 없고 버티기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은 내국민만 상대해서는 대형마트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대만의 스린 야시장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프라

를 건설하고 모두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새로 세워야 재래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지 단지 현재처럼 주차장 건설, 건물 구조개선으로는 예산 낭비일 뿐 이미 갖추어진 대형마트를 당해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논외이지만 찻주찬이나 야시장 같은 외식문화 덕분에 타이페이의 여인들은 고된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남녀의 고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은 타이완의 경제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후문이 있다.

딘타이펑, 대만음식 세계화 모습의 단편.....

1993년 뉴욕타임즈에서 ‘가보고 싶은 세계 10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타이페이시 용강제에 있는 딘타이펑 본점을 방문하였다. 대만여행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르는 성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샤오롱바오(소룡포, 小籠包)는 18개의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딘타이펑 주방의 모습

잠시 동안 식당주방을 들여다 보았다. 반죽을 만드는 사람, 1개 분량의 반죽을 떼어내는 사람, 떼어낸 반죽을 펴는 사람, 속을 만드는 사람, 반죽과 속을 싸는 사람, 만들어진 샤오롱

바오를 찜통에 넣는 사람, 찌는 사람으로 모두 분업화 되어 있다. 요리사들의 정확한 손놀림과 정해진 요리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샤오롱바오가 18개의 주름에 쌓여, 일정한 중량으로 만들어 진다.

딘타이펑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학교에 있을 어린 소년·소녀들이 딘타이펑의 주방이나 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궁금해서 양해를 구하고 서빙을 보는 한 소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소년은 음식전문학교(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 다니는 중으로 현재 실습중으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습을 거친다고 한다. 이런 실습을 거친 음식전문학교의 학생들이 중국대륙의 맛과 조리법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인, 세계인의 입을 맞춰나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딤타이핑 같은 식당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 딤타이핑에서 실습중인
음식전문학교의 학생들

우리나라도 실습이 있으나 대만처럼 이렇게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전문학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관념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얼마 전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숙박시설 부족 등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관광호텔 활성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김치, 불고기외에는 널리 알려진 음식이 없는 우리나라에도 타이완의 음식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통해 유능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들을 연구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하여, 여행의 묘미를 더해주는 먹을거리가 한층 더 풍성해지고, 관광 한류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평.....

타이베이 도시의 분위기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거나 사람들과 대해보면 타이베이는 한마디로 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외향을 중시하지 않고 속 내용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참 배울만 했다. 무엇보다 시의원, 시정부 공무원들의 타이베이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대화 내내 느껴졌다. 타이베이시의 발전이 의원, 공무원,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 특히 타이베이의 깨끗한 거리.. 꼭 성동구에 거리에 옮겨 놓겨 놓아야겠다.

대만의 많은 곳을 둘러 보진 못했지만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은 웬만큼 시찰했고, 이번 비교시찰의 가치는 다른 어떤 때의 비교시찰보다 현실적이어서 유용했다. 비교 대상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대상으로 우리 구에 적용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선택이었다.